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디자인 研究

朴 惠 媛

國立昌原大學校 衣類學科 助教授

A Study on the Designs of John Galliano

Hye-Won Park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 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consideration of John Galliano's fashion design works. Galliano, young British designer, became the chief designer of Givenchy in 1995 and of Christian Dior in 1996. Through fashion information from WWD, High Fashion, Mode et Mode, Collezioni, Vogue, Internet sites and video tapes from 1995 to 1999, his works were concern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we can find dynamics in Galliano's works. The dynamic mood came from his study about historic costume.

Second, new beauty from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was expressed on his designs.

Third, his experimental creativities were based on fashion business.

Therefore Galliano's eccentricity signify the Maximalism against the Minimalism which dominated the end of 20th century. So we can find a clue to new millenium in fashion world in his designs.

I. 서론

양리 휘시용은 「형의 생명」에서 예술작품은 물질이며, 또한 정신인 동시에 형식이며 내용이라 말한다. 조형예술의 작품은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을 감상할 경우,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표현내용은 조형형식에서 나타난다¹⁾.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는 그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요소를 분석하여 당시대의 미적 특성과 함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알 수 있다. 이는 비 영속적이며 순간적이라 일컬어지는 패션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공기를 최첨단에서 흡수, 전달하는 역할을 디자이너가 충실히 하고 있음²⁾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온 패션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³⁾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복식 사학자 스틸(Valerie Steele)은 1990년대에 가장 창조적인 세 명의 디자이너를 꼽는다면 장 폴 고틀리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리고 존 갈리아노라고 말한다⁴⁾. 특히 최근에는 영

국출신의 디자이너들의 급부상에 세계의 패션계가 주목하고 있다. 파리의 오토 쿠튀르의 유명 하우스에 영국 디자이너들이 속속 영입되는 것 뿐 아니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도 영국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새로움과 가능성이 이미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영국 출신의 신홍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⁵⁾는 국내의 제3세대 디자이너들의 가능성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이너를 꿈꾸는 예비디자이너들을 위한 교육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출신 신홍디자이너로서 1995년 지방시의 대표디자이너로 발탁되고 곧이어 1996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대표디자이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을 연구하여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존 갈리아노 첫 번째 컬렉션이 열렸던 1984년 이후 영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89년까지의 자료와 파리 진출 후 유명 하우스의 수석디자이너 시기인 1995년 부터 1999년 봄까지의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WWD, High Fashion, Mode et

Mode, Collezioni, Vogue 등의 패션 정보지와 인터넷 사이트, 컬렉션 비디오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패션 이론 서적과 관계 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II. 갈리아노의 파리 진출 배경

갈리아노의 파리 진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국의 패션 산업의 특성과 패션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파리 진출 이전 영국에서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갈리아노 컬렉션은 무엇보다 힘이 있다. 와일드 환타지로 표현되는 그의 무대에는 현대여성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그가 표현하는 드레스는 생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 보인다. 전통적인 모드의 중심지인 파리의 오프 쿠티르에서 갈리아노의 기괴함과 거리패션 같은 작품의 열기는 파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미니멀리즘의 흐름 속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그의 작품과 아이디어는 그가 습득한 영국의 패션 교육과 패션 산업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영국은 오랜 전통에 의한 보수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이라는 이중구조가 잘 조화된 나라이다. 이에 대해 에이미 드 라 헤이(Amy de la Haye)는 *The Cutting Edge*에서 영국 패션을 고전적 전통성(classic tradition)과 거친 창조성(wild creativity)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⁶⁾. 이는 버버리(Burberrys)로부터 켄싱턴 마켓(Kensington Market)에 까지 이르는 영국의 창조성과 대담성을 말한다⁷⁾. 영국의 패션산업은 1960년대 미니 선풍과 함께 떠올랐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영국이 전세계 패션산업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은 적은 없었다⁸⁾. 젊은 디자이너들로 인해 영국 패션은 불황에서 빠져 나왔다. 세계의 바이어들과 언론의 시선을 런던의 패션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른 국가의 패션쇼와는 다른 쇼를 보여주어야 했다⁹⁾.

1980년대 초기만 해도 영국은 매우 창조적인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에 커다란 애착을 가진 국가로 자주 언급되었다¹⁰⁾. 패션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가 미치지 못했었고 신진디자이너들의 재능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기회와 능력이 없었다¹¹⁾. 영국은 산업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1989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옷에 대한 소비의 75%가 체인 스토어(chain store)에서 구입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50%, 이탈리아의 2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많은 영국인들이 디자이너 브랜드나 그에 준하는 고급 상표의 의복소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뜻한다. 자연히 영국의 제조 산업은 이러한 상황에 맞게 조절되어 외

형적 규모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디자이너들은 파리나 밀라노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열어 선진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갖게 되었다¹²⁾.

이러한 영국 내 상황의 어려움과 변화에 편승하여 패션교육에도 변화가 왔다. 아트 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은 환상을 떨치게 되었다. 영국 내 산업에서 요구되는 점에 부적절한 교육을 한다는 비평도 많았다. 졸업생들은 자국 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패션산업이 외형적 규모보다는 고부가가치 지향으로 변함에 따라 기술적인 숙련보다 거대한 패션 산업 국가가 갖지 못한 차원 높은, 창조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배출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1983년 영국 패션 협회(BFC)가 결성되고 '84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 상을 제정하는 등 역량있는 디자이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90년에 더욱 가속화되어 영국 디자이너 패션 산업에 대한 조사(A Survey of the UK Designer Fashion Industry)를 과감히 실시하여 패션 산업을 낱알이 분석함으로써 패션 영국을 위한 재도약을 모색하게 되었다¹³⁾.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패션산업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동경 등을 제치고 급성장 하게 되었다.

결국 갈리아노가 받아 온 패션교육은 창의력에 바탕을 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었으며 그가 아트 스쿨을 졸업할 때는 영국 패션산업의 변화의 물결이 산학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는 정점의 시기였다.

한편 갈리아노의 파리 진출 이전 영국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 갈리아노는 영국의 세인트 마틴 스쿨 오브 아트(St. Martin's School of Art) 출신으로 1983년 학위 졸업을 위한 컬렉션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창의력 있는 작품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졸업 작품은 Browns에 팔렸는데 학생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이후 '84년부터 '89년까지 영국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Peder Bertelson, Faycel Amour and Hohn Bault 등 많은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에 의해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그림 1). 1990년부터 활동 무대를 파리로 옮기게 되었는데 LVMH그룹(지방시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형 기업)의 관심을 받았다(그림 2)¹⁴⁾ 그러나 전세계 패션계에서 힘있는 디자이너로 임지를 굳힌 것은 바로 지방시에 영입되면서부터였다. '95년 영국 출신으로 파리 오프 쿠티르의 보수적 하우스로 이름 알려진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96년부터 파리 패션의 자존심인 크리스티앙 디오르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되었다. 특히 '97년은 파리 패션의 중요한 해였다. 디오르가 누



〈그림 1〉 갈리아노의 이브닝드레스 'Seashell', 1988년, The Cutting Edge, p.86



〈그림 2〉 갈리아노 컬렉션 광고 포스터. 1990. The Cutting Edge, p.34



〈그림 3〉 졸업 컬렉션 [앵크루아아블]의 스케치. Galliano, p.78

록을 발표하여 20세기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파리 뿐 아니라 전세계는 50주년 기념 컬렉션에 거는 기대가 무척 높았다. 뜻밖에 영국출신의 신예 디자이너가 기용되는 놀라운 일은 그의 컬렉션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디오르에 대한 철저한 연구, 창의력, 미래지향적 분위기, 작품의 기본이 되는 로맨티시즘을 적절히 조화시켜 세계의 갈채를 받았다¹⁶⁾. 그리고 1987년, '94년, '95년 세 번에 걸쳐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결국 영국 패션산업은 패션 산업 전체의 구조를 조정하고 외형적 규모를 줄이고 산업의 문제점을 낱알이 분석하여 세계 패션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패션교육도 영국 패션의 창조적 산실인 아트 스쿨에서 '80년대에 들어와 정부와 산학의 연계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 패션 전반적인 흐름은 갈리아노가 영국 아방가르드 중 새로운 급진파의 하나로 대표되어 파리로 진출하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갈리아노 자신의 디자인 창작력과 신진 디자이너에게 컬렉션의 기회를 부여한 많은 자본가와 관련 기업가들의 도움은 새로운 밀레니움 시대의 선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III. 갈리아노 디자인의 미적 특성

1984년 갈리아노는 그의 첫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후 현재까지 자신의 기성복 라인과 크리스티앙 디오르사의 수석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디자이너든지 자신의 디자인 창작에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컬렉션 이후 지방시, 디오르,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에 상관없이 갈리아노의 디자인에는 저변에 흐르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미적 특성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활약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주목되는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역사주의를 통한 역동성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갈리아노를 '패션의 열광자'라고 지적했다¹⁶⁾. 갈리아노의 완벽에 가까운 새로운 스타일의 근거는 우선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영감을 끌어낸다는 점이다.¹⁷⁾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제시되어온 역사적 사건과 복식사에 근거한 새로운 모티브는 그의 작품에ダイナ믹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역사주의 근원의 첫 번째는 프랑스 문화사에서 비롯되었다¹⁸⁾(그림 3). 갈리아노는 처음 그의 학위졸업작품 컬렉션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브에 커팅의 변화를 주어 현대적 작품으로 표현했다. 시대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최신의 현대적인 것으로 적용시킨 것이었다. 박물관의 의상을 생생하게 연구하여 구성방법



〈그림 4〉 재단법에 변화를 주어 창의적으로 표현한 졸업 컬렉션
[앵크루아야블] 작품. Galliano. p.79

을 배우고 다양한 재단법을 시도하여 새로운 형으로 직물을 드레이프 시킨 18세기 앵크루아야블(Les Incroyables)¹⁹⁾ 컬렉션이었다(그림 4). 특히 바이어스 재단에 대한 갈리아노의 애착은 18세기 댄디적 취향으로 그의 디자인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비대칭적인 헴라인에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종종 직물의 사용에서도 도전과 실험을 계속하는데 이러한 도전의 근거도 바로 역사 패션에 대한 그의 철저한 연구에 있다고 하겠다.

지방시 디자이너로 있을 때 '96-97 A/W 오트 쿠튀르에서는 자크 파스(Jacques Fath)에게서 받은 영감을 디테일 보다 형태와 볼륨을 강조하여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재해석하였다. 또한 고대 이집트적인 분위기는 '97년 갈리아노 자신의 컬렉션에서 표현하였다(그림 5). 그러나 과거의 복식을 재현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이미지, 오브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현대 포스트모던 예술의 원리를 따랐다²⁰⁾. 역사주의를 통한 패션 컬렉션의 역동적 분위기는 흥미와 독창성을 만들어냈다. 과거로부터 배워와 현재의 패션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현대적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균형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복에서 찾아낸 아이디어를 보수적이고 진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스피드와 리듬에 의해 로맨틱 무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곧 무한한 미래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역사주의적 이미지는 강렬한 민속적 취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왔다. '97년에는 문화혁명 이전의 중국의 미를 강렬한 효과로 나타내었으며(그림 6) 동양에 대한 흥미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지속되어온 드가(Degas)와 마네(Manet)의 흔적을 따라 새롭고 신선하게 표현하였다²¹⁾(그림 7). '98-'99 추동 파리 오트쿠튀르 컬렉션에서는 디오르 하우



〈그림 5〉 고대 이집트 복식을 응용한 디자인. '97-98
A/W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Galliano. p.47

스를 위한 컬렉션에서 천여 가지의 색채를 가진 레드 인디언에 까지 연결되어 포카혼타스의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패션전문지 「High Fashion」에서는 이를 지적하여 “포카혼타스의 사랑과 노스탈지아”²²⁾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그림 8).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케이프와 액세서리 등이 보여졌다. 또한 인도를 향한 오리엔트 열차가 세계를 건너는 이미지 여행도 무대에서 연출되었고 이집트에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의 화려한 모습 등이 마치 환상의 세계로 내딛는 것처럼 표현되었다²³⁾(그림 9).

이렇듯 갈리아노는 매시즌 새로운 센세이션과 감정을 재창조하였다. 색채의 향연과 놀라운 조화는 빅토리아시대의 신체적 피팅에서부터 르네상스의 깃털모자와 브로케이드까지 그리고 인도와 인디언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두를 인류의 역사에서 꺼내고 있다(그림 10, 11). 또한 오래된 역사뿐 아니라 20세기 패션을 주도한 디오르 작품에 대한 연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1월 디오르사의 대표 디자이너로서 첫 컬렉션은 매우 중요한 무대였다. 뉴욕 록 타운 50주년 행사 뿐 아니라 신세대 존 갈리아노의 창조성을 보기 위해 온 세계가 주목하였다²⁴⁾. 디오르가 뉴욕에서 보인 특징은 장식을 없애고 직물이 가지는 면의 구성을 그대로 구조로 표현한 점이었다. 테일러드 칼라가 달린 재킷과 폴 스커트를 보인 것도 새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한 것 등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47년 뉴욕 이후 나타난 디오르의 작품을 보면 그는 구조와 형태는 일치한



〈그림 6〉 중국의 강렬한 이미지를 포스트모던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97 Ele. Galliano. p.19



〈그림 7〉 드가와 마네의 작품을 배경으로하여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 '97-98 A/W 디오르 컬렉션 Galliano. p.29



〈그림 8〉 '98-99 A/W 디오르 컬렉션. 무대전체가 인디언 마을로 표현 High Fashion. 1998. 10. p.180



〈그림 9〉 '98-99 A/W 디오르 컬렉션 High Fashion. 1998. 10. p.185



〈그림 10〉 빅토리아풍의 신체를 조이는 디자인 Galliano. p.17



〈그림 11〉 상징적인 무늬의 커다란 케이프 High Fashion. 1998. 10. p.184

다는 입장에 서고 있어 이전의 복식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구조를 배제하고 소재를 살려 다트, 턱, 주름 등으로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구조에 연결된 유기적 장식이며 항상 신체의 자연미를 살린 기능적인 조형이다²⁶⁾.

이러한 디오르의 정신(the spirit of Dior)을 갈리아노는 두가지의 상반된 표현법으로 받아들였다. 즉 디오르는 소재에 따

라 남성적 무드와 여성적 분위기를 구분하여 전자는 영국적으로 후자는 프랑스적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디오르의 레이스는 부유한 여성의 표현법이었다(그림 12). 그러나 갈리아노는 최신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른바 가죽 레이스였다²⁶⁾(그림 13). 그리고 1947년 2월에 발표된 디오르의 레오파드무늬(일명 정글로 알려짐)에서(그림 14) 갈리아노는 이브닝 룩을



<그림 12> '57년 디오르의 S/S 작품.
Galliano. p.34



<그림 13> '97 S/S 디오르를 위한 갈리아노의 작품



<그림 14> '47년 디오르의 레오파드 드레스.
Galliano. p.30



<그림 15> '97 S/S 디오르를 위한 갈리아노의 이브닝 슬립



<그림 16> '54년 디오르의 드레스 Galliano. p.21



<그림 17> '97-98 A/W 디오르 프레타 포르테의 갈리아노 디자인

표현했다. 반은 침실의 분위기였고 반은 정글의 이미지였다(그림 15). 디테일한 면에서는 디오르의 트레이드 마크인 허리선의 장식 디자인(그림 16)을 찾아내어 엘레강스하게 재해석하였다(그림 17).

결국 오트 쿠튀르에서 갈리아노가 제시한 '현대' 라는 이미지는 변혁을 의미하는 와일드 이미지였다. 기괴함(Eccentricity)을 잘 조정하였으며 컬렉션에서는 역사적 흥미와 현대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지방시와 디오르를 다시 새롭게 조명

받게 했으며(그림 18) 약한 쿠튀르의 신체에 신선한 피의 활력을 불어넣어 증가시키는데 있어 갈리아노의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해체와 재구성의 미

기존의 의복요소를 해체하여 다시 구성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미는 갈리아노의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창조력의



<그림 20> '96-'97 A/W 미국 인디언 이미지의 핑키한 작품
Galliano. p.168

<그림 19> 복잡한 느낌의 갈리아노 디자인 '86-'87작품

<그림 18> 탁월한 재단에 의해 표현된 50년대 복고풍의 슈트 Fifty Years of Fashion. p.150



<그림 21> 갈리아노의 란제리 룩.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97-'98 A/W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그림 22> 초현실주의 이미지의 작품 '99 S/S 디오르 컬렉션. Collezioni. #69. p.188

근거가 된다(그림 19). 그래서 그의 작품은 어쩌면 산만해 보이기도 한다.

'96-'97 A/W에서는 미국 원주민의 패턴장식이 있는 담요에서 영감을 받아 대담한 색과 형태로 만들어냈다. 기본적인 구조가 다 해체되어 아무런 형태도 없어 보이는 핑키하고 원시적 분위기는 세련되어 보이지 않지만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그림 20)²⁷⁾. 또한 란제리 룩으로서 표현된 '겉옷으

로서의 속옷'은 '97-'98 갈리아노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표현하였다(그림 21). '99 S/S 에서는 초현실주의를 이용한 기발함과 복고, 해체 그리고 재구성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다²⁸⁾(그림 22).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는 갈리아노는 그의 해체와 재구성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이아몬드는 대단히 화려하죠. 나는 다이아몬드를 아무런 원칙 없



<그림 23> '93 S/S 갈리아노 컬렉션. 새로운 테일러링의 모습 Galliano. p.184



<그림 24> '98 A/W 갈리아노 디자인. 큐비스트 이미지의 구축적인 코트
<http://www.firstview.com>



<그림 25> '95년 A/W 갈리아노 디자인. 가죽과 바이어스 재단 모직물의 조화.
<http://www.firstview.com>

이, 즉 예기치 않은 곳에 장식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목걸이를 사용하여 뒤에서 앞까지 장식하기도 하죠. 가을 컬렉션에서는 순수한 기모노에서 영감을 떠올렸어요. 게이샤 소녀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에로틱한 곳은 목이었는데, 그 모델의 목뒤에 목걸이를 달았습니다”²⁹⁾ 해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새롭게 구축(construction) 하기 위해 구조와 기술을 세워나갈 것이다”고 하며 “아마도 우리 세대는 디오르 제품 같이 멋진 재킷은 버룩시장에서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 한 그 옷이 얼마나 몸에 잘 맞는지를 알아볼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바이어스 컷 드레스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과거의 기술을 연구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결과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전통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³⁰⁾라고 답한다.

결국 그의 작품은 과거의 영감을 가져와 해체시키고 최신의 기술과 연구를 통해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결과라 하겠다(그림 23).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쿠티르 하우스의 일³¹⁾이라고 갈리아노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체에 직접 대고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형식적인 형식성은 갈리아노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위해 소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데님과 라이크라에 근거한 갈리아노 작품은 더 젊어보이고 더 핑키해 보이는

의복을 개발하기 위해 하위문화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표현한다. 덜 비싼 소재를 이용하여 가격을 낮춘 디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이다(그림 24).

해체와 재구성을 위해 꼭 필요하며 실제 영국 디자이너들 중 최고로 평가받는 점은 재단의 탁월함에 있다. 비오네를 존경하는 그는 바이어스 커팅이 실험적 작품의 기본이 된다(그림 25) 그가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모던한 테크놀러지를 함께 복합시키는 디자이너로 유명하다(그림 26). 가령 수공예적 분위기를 좋아하는 한편으로 바이어스 의상을 만드는데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에 맞는 패턴 시스템들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³²⁾. 이러한 노력은 고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유럽의 고객들은 피트된 룩과 갈리아노가 제안한 정교한 커팅을 미국 여성들은 좀 더 편안한 형태와 클래식한 스포츠웨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클래머러스한 바이어스 커트 드레스의 전문가이며 오트 쿠튀르 풍의 끝마무리 처리(섬세한 바이어스 커팅, 엄정한 더블 스티치, 빼어난 바느질 솜씨 등)에 매우 노련한 솜씨가 반영되어 있다³³⁾.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디오르의 뉴 룩에 이르기까지 그가 섭렵한 연구는 갈리아노의 창조력에 의해 과거의 옷들이 해체 분해되고 실험적 소재들이 그의 재단력에 의해 다시 구성되어 역동적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그의 컬렉션은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26〉 '96 S/S 지방시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갈리아노 디자인. 18세기적 취향과 벨 에포크의 분위기가 현대적 재단법고 어울려 새롭게 제시. Galliano, p.180

3. 상업성에 근거한 실험적 창조성

이미 지적한 갈리아노의 실험적 창조성은 단지 예술가로 머물지 않고 패션산업의 궁극적 목적인 비즈니스와 연결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 패션산업의 위기 탈출이란 점에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WWD는 “이번 시즌의 최고의 쇼맨은 뉘니뉘니해도 존 갈리아노였다.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쇼에서는 보수적인 여성들을 위한 의상이 단 한 벌도 없었다.” 미니멀리즘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한 요지 야마모토와 의견을 같이 할 지도 모른다³⁴⁾ 하였다.

Collezioni도 '99 S/S 파리 컬렉션을 평하면서 매 시즌 가장 열정적으로 기다려진 그리고 파리 패션쇼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천재적이고 극적인 무대는 갈리아노라고³⁵⁾ 하였다.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는 관람객과 바이어들에게 그의 말대로 기쁨을 제공하였다. 갈리아노는 연극의 대가이며 환상의 대가이다. 가장 탁월한 것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대가이란 점이다. 이러한 갈리아노의 와일드 이미지는 완전히 상업적인 방법과 결합하여 비즈니스에도 성공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지방시 데뷔 컬렉션에서도 고상함과 악취미를 두 가지다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가능성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오트 쿠튀르의 아틀리에를 알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나를 알도록 하

고 싶었다. 나는 그것을 성공했다.”³⁶⁾고 갈리아노는 말한다. 세인의 주목을 끄는 것, 그래서 언론과 바이어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상업주의적 발상의 기본이다. 그러나 탁월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은 의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쇼 전체에 흐른다. 갈리아노는 직접 무대 연출과 구성을 하는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컬렉션에는 가장 많은 관객과 언론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시, 디오르사의 명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붙인 라이선스를 할 기회가 많아졌다. 갈리아노는 뉴욕의 삭스 피프스 애비뉴(Sack's Fifth Ave.)에 지방시 컬렉션으로 처음 소개된 것도 그리고 소규모의 프리젠테이션도 잘 마친 것도 궁극적 목표는 뉴욕을 점령하려는 시도였다. 갈리아노는 미국시장이 그의 ‘도전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³⁷⁾.

그리고 가능한 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여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시도하려는 것도 젊은 디자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알려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갈리아노의 작품이 때로는 과장되어 보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로맨틱리즘에 호소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페플럼(peplums)타이트 슈트로부터 바이어스-커트 이브닝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재킷은 파리에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다³⁸⁾(그림 18).

갈리아노는 실험적이고 탁월한 창조력을 가진 상업적 디자이너이다. 예술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대상에 따라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목표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에 맞추어 앙크루야야블을 재창조했으며 디오르의 뉴 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와일드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어 성공하였다. 이미 갈리아노의 모자와 신발 등은 유통이 시작되었고 남성복과 향수도 판매되어 그의 이름이 붙은 라이선스가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신흥 디자이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는 쿠튀르 하우스의 재정 담당자들의 몫도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IV. 결론

영국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로서 파리의 보수적 오트 쿠튀르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존 갈리아노의 작품을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의 성공적인 파리 진출에는 갈리아노 자신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재능 이외에 영국 패션의 실제적 교육과 영국패션 산업의 고부가가치 지향으로의 탄력 있는 정책변화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유럽의 패션계에서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들의 급부상을 주목하고 이들의 활동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영국 패션산업의 성공적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갈리아노의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여 새롭게 적용하는 역사주의를 통해 다이내믹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주의는 단지 재해석 차원이 아닌 아이디어의 근원이며 새로움을 제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고대복식부터 현대 디오르의 작품까지 폭넓은 복식사와 민족복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의 작품에 있어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아방가르드한 성격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복식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재단력이 요구되는데 갈리아노는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을 즐겨 이용하면서 탁월한 커팅 라인으로 새로움을 구축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그의 작품과 무대연출은 전 세계 바이어와 언론 그리고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벤트로 자리잡아 갈리아노만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예술가로서의 갈리아노가 아닌 패션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상업적 디자이너로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험하는 노력이 그의 디자인과 컬렉션을 위한 무대 연출에서 잘 표현되었다.

결국 갈리아노의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그 동안 세기말을 맞이하여 전세계에 퍼졌던 미니멀리즘의 진부함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은 어느 하나라도 단순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과잉장식도 아니다. 절제히 그리고 충실하게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커팅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작품에 표현하려는 일종의 맥시멀리즘(maximalism)이다. 장 폴 고티에나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함께 1990년대를 대표하는 존 갈리아노는 이전 시대의 푸아레, 샤넬, 스기아팔레리, 발렌시아가에 못지 않는 시대의 선두자라 할 수 있다. 환상을 자유롭게 하고 과거의 단편성에서 벗어나 오트 쿠튀르를 한 발 앞서게 했으며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촉진시켰고 오트 쿠튀르의 다음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였음에 분명하다.

참고문헌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6, p.306.
2. 엄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服飾, 1998, 제37호, 한국복식학회.
3. 김 일, Elsa Schiaparelli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복식, 20호, 1993.
4. 박명희,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1990.
5. 박혜원, Paul Poiret의 Modernism, 1986,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6. 엄혜정, 1998.
7. 이미숙,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1998,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8.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미야케 이세이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1990,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9. 전해정, Claire McCardell의 Modernism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1, 제29권, 4호.
10. 조규화, 크리스장 디올 연구-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조형의 지향, 1977, 국민대학교논문집, 12.
11. 조말희, 장 샤를르 드 카그텔바작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998, 제2권 3호.
12. 주명희, 지아니 베르사체의 의상에 나타난 프리미티비즘에 관한 연구, 복식, 1991, 제27호.
13.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992, 제16권, 4호.
14. Valerie Steel, Fifty years of fashion : New look to now, Yale Univ. press, 1997, p.152.
15. 배수정, 영국 패션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Lee Alexander MacQueen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998, 제2권, 3호.
16. Amy de la Hay(ed), The Cutting Edge :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 - 1997, The Overlook Press, London, 1997, p.197.
17. 앞 글.
18. 배수정, 1998, p.44
19. 앞 글.
20. De la Hay, 1997, p.30.
21. 앞 글.
22. 앞 글. p.32.
23. 앞 글.
24. 앞 글, wp.204.
25. <http://wwd.com>
26. Richard Martin(ed), Contemporary Fashion, St. James Press, 1994, p.188.
27. 앞 글, p.188.
28. Colin McDowell, Galliano, Rizzoli, 1997, NewYork, pp.78-79.
29. 원래 의미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란 뜻으로 프랑스 혁명 후에 나타난 정통파가 아닌 사람의 눈을 끄는 이색

적인 멋쟁이 남성을 뜻함. 길게 늘어뜨린 장발이나 뿔은 머리, 묶은 머리 형태의 가발착용. 그 위에 비코른(이각 모)을 쓰고 큰 라펠이 달린 코트를 입음. 목에는 크라바트를 쓴 복장을 함. 같은 시대에 나타난 이색적인 여성을 메르베이외즈(Les merveilleuse)라고 함. (조규화, 服飾辭典, 경춘사, 1996, p.366)

20. Valerie, 1997, p.152.
21. McDowell, 1997, p.29.
22. High Fashion, 10, No.263, 文化出版局, 東京, 1998, p.182-185.
23. Collezioni, 1998, #66, pp188-193.
24. McDowell, 1997, p.13.
25. 조규화, 1996, p.318.
26. McDowell, 1997, p.30.
27. McDowell, 1997, p.168.
28. Collezioni, #69, 1998, pp.188-193.
29. WWD, 1994, 8, p.26.
30. 앞 글.
31. 앞 글.
32. WWD, 1996, 12.
33. WWD, 1995, 1, p.116.
34. WWD, 1997, 12.
35. Collezioni, #66, 1999, pp188-193.
36. WWD, 1995, 1, p.116.
37. WWD, 1994, 8, p.27.
38. WWD, 1995, 1, p.79.